

##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

- '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

유정선\*

<차례>

1. 시작하는 말: 여성과 놀이 공간
2. 음식, 솜씨의 발휘와 욕구의 충족
  - (1) 음식 만들기- '잘' 만들기 또는 '잘못' 만들기
  - (2) 음식 먹기- '포식'을 통한 욕구 충족
3. 술, 풍류의 격조와 정서적 해방감
  - (1) 경치 완상과 풍류의 격조
  - (2) 취흥을 통한 정서적 해방감과 자기표현
4. 놀이, '규범과의 어긋나기'와 자족적 즐거움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화전가의 문학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핵이 놀이적 성격이라고 보고, 놀이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놀이를 노래한 화전가에는 일상에서의 탈주를 꿈꾸는 당대 여성들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놀이공간에서는 일상의 규범에서 벗어나 정서적 해방감을 구가한다.

이 때 놀이를 구성하는 중심 기호는 음식과 술이다. 놀이 속에서 음식의 향유는 솜씨 발휘의 만들기·배불리 먹기로 나타나며, 이는 규범과 어긋나는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먹는 대상으로서의 음식', '음식 배불리 먹기'는 남성 사대부 가사에서 낯선 미감이다. 그 결과 화전가는 음식을 통해 몸에 새겨진 미감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획득한다. 또한 술은 사대부의 놀이문화인 풍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여성은 술을 마심으로써 주류문화의 문화적 체험을 전유하는 한편, 자신의 현존을 돌

\* 경원대 강사

아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삶 속에서 놀이가 갖는 의미는 일상적 규범과의 은근한 어긋남에서 오는 재미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성 간 친화적 연대의식 속에서 자족적인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다.

**주제어** 화전가, 놀이 공간, 놀이적 성격, 음식, 술, 자족적 즐거움

## 1. 시작하는 말: 여성과 놀이 공간

주지하듯이 조선 시대로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폐쇄적인 상태에서 생활하였으며, 외출은 엄격히 규제되어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중 화전놀이는 여성들에게 허용된 공식적인 나들이 중 하나로서, 춘삼월 즈음에 촌락 내 여성들끼리 근처 승지로 나가서 화전을 굽고 즐기던 모임이다.

이러한 화전놀이를 다룬 화전가 계열 작품들은 규방가사 내 하위유형 중에서도 중심 유형에 해당한다. 규방가사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장르로, 당시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 정감을 풀어 놓은 까닭에 여성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화전가 계열이 중심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그만큼 집 밖으로의 외출이 당대 여성들의 열망이며 관심사였음을 반영한다.

기존에 화전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행·탐승·화전의 내용을 다룬 작품 계열이 규방가사의 가장 중심 되는 유형으로 보고 연대 의식과 자긍심을 내용적 특질로 이해한 연구<sup>1)</sup>, 화전가의 특징을 친화적 연대의식·조직적 능력·여성적 삶에 대한 토론으로 본 연구<sup>2)</sup>, 화전가에

1)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대 박사학위 논문, 2000

나타난 작자와 독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sup>3)</sup>, 화전가 작품들 중 특히 남성 작가 및 남성화자 작품들에 주목한 연구<sup>4)</sup> 등이 있다.

백순철은, 화전가 계열이 오랫동안 전승된 생명력의 동인은 가문과 촌락 중심의 창작환경에 있으며, 내용적 특질은 가문에 대한 자긍심과 여성 간 연대의식이라고 보았다.<sup>5)</sup> 이동연은, 화전가가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관심세계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여성독자성이 강하며, 양반여성들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 하여 성립된 장르라고 하였다. 이 때 여성독자성이 집단적 공간이동 속에서 이루어지며, 화전가는 집단적 공간이동으로 성립된 집단적 존재의식의 산물로 보았다.<sup>6)</sup>

서영숙은 남성과 젊은 여성, 젊은 여성과 남성, 여자노인과 젊은 여성, 여자노인들 간 등 화전가 작품에 설정된 작가와 독자 관계를 나누어 살펴 보았다. 남성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은 여성화자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식의 한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세대에 따른 여성의식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아, 여성노인들 작품들의 경우 신세한탄의 내용보다는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비중 있게 드러난다고 보았다.<sup>7)</sup>

박경주는 남성 작가의 화전가 작품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세사회 해체기인 18-19세기를 배경으로 하여 변화하는 여성의식에 대응해 가는 남성들의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두 계열로 나누어 쌍방간의 사소통을 지향하는 작품들에서는 권위의식을 버리고자 하였으며, 일방소

2) 이동연, '화전가류',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3) 서영숙, '여성가사에 투영된 작가와 독자의 관계',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4)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5) 백순철, 앞의 논문, 52-61면

6) 이동연, 앞의 책, 345-356면

7) 서영숙, 앞의 책, 213-251면

통을 지향하는 작품들에서는 자의식 성장을 부정하고 억누르고자 하었다고 보았다.<sup>8)</sup>

이러한 선행연구 업적들을 수렴하면서, 본고에서는 화전가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화전놀이를 자술적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점에 착목하기로 한다. 즉 화전가의 문학적 성격을 특징짓는 중핵이 놀이적 성격이라고 본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탈일상성<sup>9)</sup>으로서의 ‘놀이적 성격’은 화전가가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었던 핵심적 동인으로서, 일상에서의 탈주를 꿈꾸는 당대 여성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 때의 ‘일상’이란 여성의 삶과 경험을 지배하는 지배적 이념이자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이며, ‘놀이’란 공간적 이동을 통한 이로부터의 일시적인 이완 내지 일탈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화전가에 나타난 놀이적 성격에 대한 천착은 당시 여성들 삶의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된 갈등과 꿈꾸기를 투시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이에 여성의식과 놀이공간이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는지, 나아가 ‘놀이’라는 것이 당대 여성의식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성의식과 놀이공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특히 ‘음식’과 ‘술’이라는 사물이 화전가의 놀이적 성격을 규정짓는 키워드라고 보아, 놀이 공간 내 음식과 술의 의미를 여성의식과 관련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놀이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화전놀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음식’과 관련된 놀이라는 점이다. ‘음식(술 포함)’의 향유가 놀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은 당시 여성들의 일상공간에서 술과 음식이 고달픈 가사노동과 결부된 산물이라는 점과 대응된다. 이러한 변별적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음식’과 ‘술’은 여성들의 놀이공간이 지니는 놀이적 특성을 유표화 할 수 있는 기호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전가의 특징

8) 박경주, 앞의 책, 58-77면

9) 요한 호이징하, 『호모 루덴스』, 까치, 2008, 26면

으로 지적된 집단적 존재의식 및 여성 간 연대의식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  
질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 음식, 솜씨의 발휘와 욕구의 충족

음식과 술은 화전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은 놀이  
의 품격을 구성하는 것이며 놀이의 재미를 주는 요소이다. 일상에서 ‘음식  
만들기’는 가사노동으로서 시집살이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지만,  
놀이공간에서 음식 만들기는 솜씨를 발휘하고 먹는 즐거움을 지닌 놀이  
가 된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공간에서 직접 화전을 굽고 만들며 솜씨  
를 뽐내는 가운데, 음식 만들기과 먹기는 순수한 재미를 준다. ‘술’ 또한  
일상에서는 ‘술 빚기’라는 가사노동으로 의식되지만, 놀이공간에서는 정서  
적 해방감을 만끽하는 흥취의 대상으로 전화한다.

### (1) 음식 만들기- ‘잘’ 만들기 또는 ‘잘못’ 만들기

전형적인 화전가의 구성은 ‘서사-봄 찬미- 놀이공론-택일- 통문-준비  
-치장-승지찬미-화전 굽기-회식-유흥-이별- 귀가’로 되어 있다. 이중 음  
식 및 술이 관련된 부분은 ‘준비, 화전 굽기, 유흥, 회식’ 부분이다. 먼저  
출발하기 전 놀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음식을 위한 물품과 재료를 준  
비하는 단계가 들어있다. 화전 굽기를 비롯한 음식 만들기 비용을 마련하  
는 절차로서, 쌀과 돈, 양념과 재료 등 경비를 추렴하여 마련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 준비과정 또한 놀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놀이공론’, ‘택일’, ‘통문’,  
‘준비’ 등 전반적인 준비과정이 여성들만의 조직적 역량에 의해 기획되는

데, 여성들은 잠재되어 있던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는 여성작가들의 대사회적 욕망이 응결된 대목이다.<sup>10)</sup>

집집이 쌀을 내어 가지가지 떡이로다/ 명월같은 월편이며 동서남북 절편  
이며/ 늘어지는 인절미며 메밀 갈아 묵을 찌고/ 집집이 가루이며 파를 내고  
 기름 모아 /갖은 음식 갖추어서 경치 따라 놀음가세<화전가라><sup>11)</sup>

각조 출엄 허여니니 충졸성편 평중하다 /닷말지기 되술그로 썩흐시르 저  
 왓구늬<상원화슈가>

조흔 일즈 바다두고 일두 미와 일양 선을/ 십십이 더여니니 <화전가라>

십시일반 모은 쌀이 두말 가웃 넉넉하고 /연지보다 붉은 꽃을 한두 송이  
 찢는 것이/ 한 바구니 넘는구나 <평양산화전가>

위를 보면 화전놀음은 한 부락의 공동관심사이자 성사(盛事)로 자리한다. 모두 공평하게 자발적으로 음식을 모으는 과정은 부담을 함께 진다는 측면에서 여성들 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여성들의 놀이공간에서 음식이 지닌 의미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1) 섬섬옥수 뽑아내어 꺾고 따고 무친 후에/ 화중에 붉은 실은 꽃싸움에  
 싸려하고/ 향기 맑은 꽃입흔 격 꾸어 먹어보자/ 석간슈 옥계변에 옥관을 걸

10) 이동연, 위의 책, 352-53면

11)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집성』, 누리미디어, CD.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가사 작품들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하 동일한 출처의 작품들에서는 출전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어 노코/ 백분청슈 두견화를 청류에 지져내니 <화전가6>

(2) 소두빙이 늦피 글고 말근 지름 쏘더 노코/ 한편의는 쏘을 썩고 한편의는 덕 지진다/ 지름넘시 좇타만는 쏘헝기 더욱 좇타 <태장봉화전가>

(3) 화전굽세 화전굽세 여러 모양 화전굽세 /천원지방 뽀을받아 둥글게 구어볼까 /아롱다롱 꽃을 섞어 보기 좋게 구어볼까 /무럭무럭 김을 내어 먹기 좋게 구어보세 /백설갓흔 밀가루와 늦절같은 파를 섞어/ 넘적넘적 구어내어 공산명월 방불하다/ 붉고 붉은 두견화를 아롱아롱 무늬 새겨/ 보기 좋게 구어 내어 둘러앉아 맛을 보니/ 맛도 좋고 빛도 좋다 이 솜씨가 뉘 솜썩고 /이리 굵고 저리 구어 솜씨 있게 구어 낸다 <권본 화전가>

위의 (1)의 작품에서 옥계변(玉溪邊), 백분(白粉), 청수(淸水), 두견화가 어우러진 맑고 화사한 색감은 생동하는 봄날의 정경을 재현한다. (2)와 (3)의 “지름넘시 좇타만는 쏘헝기 더욱 좇타”·“무럭무럭 김을 내어”·“넘적넘적 구어내어”·“아롱아롱 무늬 새겨” 등의 표현에 드러나는 요리의 과정에서 시각과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음식의 향취와 풍미가 고스란히 재현된다.

이 장면에서는 일상공간에서 고달픈 가사노동의 하나였던 ‘음식 만들기’가 여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적 즐거움으로 격상된다. 그것은 하나의 놀이가 되며,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이 밀도 있게 드러난다. 놀이를 통해서 비로소 음식의 풍미와 향취를 온전히 즐기며 음식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꺾고 따고 무친 후에”·“소두빙이 늦피 글고 말근 기름 쏘더노코”·“한편의는 쏘을 썩고 한편의는 덕 지진다” 등 요리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반복적 리듬에는 분주하면서도 경쾌함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음식 만들기가 주는 재미는 요리 솜씨의 발휘와도 관련된다. 각자 요리하는 가운데 솜씨를 발휘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넓적하게 구어 내고, 아롱다롱 무늬를 새기고, 포릇포릇 빛도 좋게 하는” 전문적인 솜씨의 발현이다.

사각소반 넓은 반에 한반 가득 구어놓고 /차레차레 맛을 보니 그 떡맛이 어떠한고 /신춘의 피는 꽃이 먹어보니 선미로다/ 보기도 좋건마는 그 꽃 따서 떡을 구니/ 맛도 좋고 빛도 좋고 무늬 좋고 모양 좋다/ 네모납작 편떡이며 도리납작 돈떡이며/ 둥글둥글 달떡이며 아롱다롱 꽃떡이야/ 모양도 눈에 맞고 입맛에도 맞는고야 /섬섬한 가는 허리 식미대로 먹어보세/ 칠팔월 호박적이 이 우에 더 좋으며/ 팔구월 차숫치가 이 우에 더 좋으며/ 구시월 국화적이 이 우에 더 좋으며/ 포릇포릇 당파적이 이 맛을 당할소냐 <권본화 전가>

엄식 등을 불작시며 갓초갓초 소담 모도 출난하다 /포릇포릇 파적이며 불긋불긋 숫적이며/ 이터빅의 연엽주와 도연명의 국화주와 /기 조흔 송엽주와 먹기 조흔 기명주면/ 펄펄 뛰는 붕어썸<화전가라>

“네모납작 편떡, 도리납작 돈떡, 둥글둥글 달떡, 아롱다롱 꽃떡” 등 다채로운 모양의 떡들을 자유자재로 구어내는 솜씨와 “포릇포릇, 불긋불긋, 펄펄 뛰는” 갓가지 형태의 찬란한 소담들. 이 소담들은 모양, 맛, 빛이 모두 어우러진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자족한다.

이 때 음식 만들기가 놀이일 수 있는 것은 또한 규범적 틀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음식 만들기라는 점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만들기에서 ‘잘 만들기’뿐만 아니라 ‘잘못 만들기’ 또한 웃음을 유발한다.

어와 세상 딸래들아 꽃적굽기 슬시하라/ 아해 불러 꽃 따이고 정강택적

그러노코/ 꽃화즈 기름 유즈 가루 분즈 합을 호여 / 꾸을 적즈 꾸워내니 먹  
을 식즈 으뜸이라/ 맛시 사아 이상하다 <화전가라>

상하촌 여러 떡니 구름가치 모여들 제/ 한 디 한 흠 모은 쌀이 진합태산  
소담하다 /홍홍백백 썩겨가며 뒤적뒤적 반죽할 제/ 빅옥같은 두손바닥 썩가  
루가 분이로다 /웃고 보니 정답이요 씹고 보니 떡이로다 --- -- 꾸운 썩을  
들고 보니 썰고 씹고 알구꾸나 <화전가3>

“맛시 사아 이상하다”·“꾸운 썩을 들고 보니 썰고 씹고 알구꾸나”를 보면 만들어진 음식이 때로는 맛이 이상하고, 모양이 타서 검고 알긋기도 하다.

이는 일상공간에서라면 근심과 초조감을 느꼈을 일이지만, 이곳에서 그것은 정형화된 음식지절(飲食之節)에서 벗어나는 일탈적 요소로 인해 도리어 재미를 준다. ‘알구꾸나’라는 표현에는 긴장감보다는 웃음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이 두 손바닥에 떡가루가 분처럼 묻어 있고, 웃음이 넘쳐나며 정답을 나누다 구운 떡을 보니 알긋게 된 상황은 놀이공간에서의 음식 만들기를 잘 보여준다. 이때의 음식 만들기는 자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음식 만들기라는 점에서 자족적 즐거움이다.

## (2) 음식 먹기- ‘포식’을 통한 욕구 충족

화전놀이가 여성들 놀이의 양식으로 오래도록 전승되어 온 데에는 ‘음식 만들기’뿐만 아니라 놀이를 특징짓는 ‘먹기’라는 행위의 각별함이 자리한다. 이에 ‘만들기’에 못지않은 비중을 갖는 ‘먹기’와 여성의식 사이의 관련성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놀이공간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먹기라는 식욕의 충족은 주요한 즐거

움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당시 여성들이 일상공간에서 겪는 아픔이 밑그림으로 깔려 있다. 화전놀이가 지니는 탈일상성 중의 하나는 먹기와 관련되며, 이것은 일상에서의 결핍감과 대응한다. 화전가류 작품 <화전답가1>에서는 화전놀이를 즐기며 “우리의 구고님내 성덕자비 지속기로 비 풀난 시집살이 금시초문 이상호오”라고 하여 자신은 자비로운 구고님을 만나 배를 굶는 시집살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마음껏 먹는 자리인 화전놀이에서의 이러한 발성은, 놀이공간에서의 음식 먹기가 일상에서의 결핍과 대응되는 자리임을 되비쳐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시집살이 민요를 보면, 음식은 며느리라는 존재가 겪는 소외와 결핍의 상징물로 나타난다.

점심참을 찾아오요/ 방이라고 들어가니/ 밥이라고 주는 거는/삼년 묵은  
 콩보리밥/

딩기장을 한순갈에 /밥이라고 주는구나 <영동 시집살이 노래><sup>12)</sup>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시 골 반을 다여 매도/다른 정심은 다 나오는데/  
 비적삼은 함뿍 젖고 배는 고파 등에 붙고/집이라 돌아오니 시어머님 하는  
 말쌈/

어라 요년 요망한년 / 그결사나 일이라고 점심 때를 찾아오나/

하도 실프고 이이 없어 머리 깎고 중을 갈라고 하니 <문경 발매는 소리><sup>13)</sup>

위에서 보듯이 시집살이 민요의 서사를 이루는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는 ‘점심 때가 되어 집으로 들어오지만 시집 식구들은 먹을 만한 것을 주

12) MBC 민요대전, 충북-시집살이 노래, CD

13) MBC 민요대전, 경북-발매는 소리, CD

지 않음으로써 며느리 존재를 소외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곧 며느리인 여성화자의 가출이나 죽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음식'에서의 소외는 한 존재의 부정을 뜻하며, 집단의 성원으로 편입시키지 않고자 하는 배척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화전놀이의 놀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먹기', 나아가 '배불리 먹기'는 언표 이상의 긴장성을 띤다.

산천은 의구하야 타향킴지 방불하다 / 룡강지 들어가서 차례로 좌평하니 / 날은 이미 중천이라 개장솜에 질이 솟고 / 미나리로 희를 햏야 빅옥갓흔 흰쌀밥을 함포고복 먹고 나니 / 만석거부 장자인들 제 어이 미출소냐 / 밥을 먹어 비불어니 굽은 허리 곳아지고 / 술을 마셔 취회오니 업든 흥이 절노 난 다 / - - - 남의집 며늘니들 흥년살에 몇히든고 / 빈곤한 살입살이 절용절약 히엇든고 / 한살니 찢든 썸이 순식간에 간곳 업다 <휘춘곡>

명연삼월 화만산에 다시놀이 기약하고 / 산촌사리 빈한세라 옥잔에 감노주와 죽난에 두견화적 / 아죽도 남아스니 안먹고 어쩔소냐 / 벗님들아 옥배에 부은 술이 이별주 아니외다 / 명춘을 기약하니 기약주가 분명하다 <화전기6>

그렇저렇 먹노라니 우리더은 좃컨만는 / 협중 동무 엇지하여 이런 구경 하 여불가 / 불상하고 불상하다 협중동무 불상하다 / 산협 경제 암만한들 이런 경제 잇실소야 / 명동삼월 영동 와서 우리 함께 놀러보세 / 함포고복 먹고 나니 질겁구도 질겁구나 <티장봉화전기>

여기서 “흰쌀밥”·“미나리”·“두견화적” 등 음식의 이름들이 호명된다. 이중 특히 거친 밥과 대응되는 시어로 일상의 소망인 “흰 쌀밥”이 등장하고 있다. “흰 쌀밥”을 배불리 먹으면서 노동에 지친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빈한한 산촌 살이”에 “남의 집 며느리로서 흥년을 겪

으며 절용 절약”하느라고 충분히 먹지 못했던 결핍의 해소이다.

이 때 특히 배불리 먹는 ‘함포고복’은, 사대부들의 가사에 등장하는 태평성대의 은유적 표현이나 풍류의 충만함과 다른 함의를 지닌다. ‘함포고복’ 즉 ‘배불리 먹기’에는 일상의 고달픔이 깔리면서 절용의 덕목과 마찬가지로 일탈적 의미가 들어 있다.

이 점에서 대비적 관점을 제시해주는 남성사대부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규방가사는 영남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는데, 역시 영남지방의 대표적 남성 사대부 가사 작가는 노계 박인로(1561-1642)이다. 다음은 노계의 가사 <소유정가>(1617년 경)와 <노계가>(1636년)이다. 이 중 (1)의 <소유정가>는 대구 금호강가에 있는 누정인 소유정에 들렀을 때 지은 가사로, 아래는 그중에서 가을 뱃놀이 나간 부분이다. (2)의 <노계가>는 노계에서 은거하면서 지은 작품으로, 다음은 근처 조대로 낚시를 하러 나가 풍류를 즐기는 부분이다.

(1) 격안 어촌에 내노리 가자쁘라/ 백접리를 젓쁘고 소정을 타고 오니/  
벼람의 즈친 노화 갠 하느래 눈이 되야 /사양의 놉피 느라 어즈러이 썩리는  
디/ 굴넙페 닷틀 노코 옹토 집그믐의 결잔 긴 강의/ 자린은순을 수업시 자바  
니여/ 연넙페 다몬 회과 질병의 치운 수를 염복토록 머근 후의 /태기 너븐  
돌에 놉피 베고 누어시니 /희황 천지틀 오늘 다시 보아괴야 <소유정가><sup>14)</sup>

(2) 살진 고사리 춘기흔 당귀초틀/ 저포녹포 상간햐야 크나 큰 세류사에  
/흡족히 다마두고 부영회 초미예 /늘어 생치 서거 구어 빗빛치 드리거든/  
외준에 백주를 박잔의 가득 부어/ 흔 잔 쏘 흔 잔 취토록 먹은 후에/ 도화는  
홍우되야 취면에 썰리는데/ 태기 너븐 돌에 놉피 베고 누어시니/ 무희씨적  
사름인가 갈천씨쨌 백성인가 /희황성시를 다시 본가 너기노라<노계가><sup>15)</sup>

14) 이상보,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살진 고사리를 흡족히 담아두고 물고기를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술을 염복토록 먹은 후’라고 읊고 있다. “살진 고사리”, “자린은순(紫鱗銀脣)”, “흡족히 담아두고” “수없이 잡아내어”의 시어에서 볼 수 있는 생동감과 풍요로움은 사시의 순환이 부여한 생명성과 교감하는 자연 합일의 경지를 보여준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살진 고사리”·“자린은순”은 사시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생명성의 기호로서, 일용하는 음식으로서의 성격과는 변별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가락에서 “연넝패 다몬 회과 질병의 치운 수를 염복토록 머근 후의 /태기 너븐 돌애 놓피 베고 누어시니 /회황 천지를 오늘 다시 보아괴야”(〈소유정가〉)라고 하여 ‘염복토록 먹은 후에 곧 복희씨 때와 같은 이상적 태평성대임을 알겠다’고 한다. 이 때 ‘염복토록 먹다’는 태평성대임을 뜻하는 전고적 표현으로서의 ‘함포고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배불리 먹는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즉 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사물들은 먹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다.

특히 질병(질瓶), 연잎, 와준(瓦樽), 박잔(樸盞) 등에 나타난 질박 소박한 미감<sup>16)</sup>은 작품의 궁극적 의미인 안빈낙도의 윤리의식과 결부되어 있어, 실제적인 포식과는 거리가 있다. 축자적 의미 그대로의 ‘배불리 먹기’는 주류 문학인 사대부 가사에서는 낮은 미감이다. 전형적으로 <어부가> 계열에 표현된 어부 형상은 계거(溪居)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의 심미적 인식을 구현한다. 농암 이현보의 <어부가>에서 보듯이 ‘푸른 연잎에 밥을 싸는 것과 푸른 버들에 고기를 꿰는 모습’은 세속적 명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탈한 어옹의 한가로운 자태이며, 삶의 소담하고 맑은 흥취를 표현한다.<sup>17)</sup>

15) 이상보, 위의 책

16)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대 박사학위 논문, 2000, 17-23면

이와는 달리, 여성들의 놀이공간에서 음식의 함의는 살림살이로서의 음식, 일용하는 양식으로서의 음식으로서, ‘먹기’의 즐거움이 유의미한 요소로 자리한다. 따라서 위에서 보듯이 안빈의 정형화된 이미지인 ‘거친 밥’과 마찰하는 ‘흰쌀밥’에 대한 소구가 드러나 있다.

1746년 지어진 남성작으로 여성들의 화전놀이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화전가>[嘲花煎歌]와 이를 반박하는 작품인 역시 1746년 안동 권씨 작 <반도화전가>[反嘲花煎歌]중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

전후산 두견화를 다 뜻어 모화내야 / 지무든 약간 썩을 계유 구피 마술보  
고/ 인스부디 아히들은 눈취 몰나 달나흐니 / 다래며 쭈디즈며 그러저러 종  
일흐니/ 집의 아히 생각하여 낫븐 썩 못다 먹고/ 가만 슈건 펼쳐내여 각각  
뺏고 니러나니/ 창황이 가는 거동 볼수록 좃업고야 <도화전가>

청유분 모화내야 소담히 당만하여/ 옥녀선동들을 몬져갓겨 내어노코 /종  
용히 모다안자 정결히 뇨기흔 후/ 그저야 니러셔셔 곳곳디 완상하니 <반도  
화전가>

<도화전가>에서는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마치며 ‘아이들이 달라 하니 달래며 꾸짖다가 끝날 때쯤 떡을 다 먹지 못하고 집의 아이를 생각하여 수건을 펼쳐내어 싸고 창황히 가는 거동이 볼수록 우습다’고 조롱한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인 <반도화전가>는 “자녀들에게 먼저 내어주고 청유분을 소담히 장만하여 정결히 요기”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왕설래 속에서 역설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성의식에서 음식은 ‘식구’(食口)라는 한자어의 어의와 통하는 것으로 식구들과 함

17) 이형태,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인식」, 고대 박사학위 논문, 1997, 101-102면

게 나누는 맛있는 것이며, 우리가 일용하는 양식이라는 점이다. 음식 먹기는 먹기 자체의 즐거움을 주며, 놀이적 성격을 강화한다.

### 3. 술, 풍류의 격조와 정서적 해방감

#### (1) 경치 완상과 풍류의 격조

풍류는 조선시대 이래 사대부 계층의 문화양식이자 그들의 유희행위를 대변하는 미학적 용어<sup>18)</sup>로서, 문화적 교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풍류는 유자의 교양을 대표하는 시서화 삼절의 실현을 추구하는 문화적 행위로 보편화된다.<sup>19)</sup> 이때의 풍류는 산수 유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 서 화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술 또한 풍류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술은 이백이나 도연명으로 대표되는 선인의 풍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술을 마시며 경치를 완상하는 것은 고도한 풍류의 경지인 것이다. 이백과 도연명의 술에 관한 고사에서 술은 감각적 쾌락을 지시하기보다는 군자로서의 위풍을 드러내는 도도한 흥취 속에 속세의 명리로부터 초탈한 형상을 지시한다. 또한 시주객(詩酒客)이라는 어휘가 보여주듯이, 술과 결합한 산수 유람은 궁극으로 시작(詩作)과 연결되며, 빼어난 시를 남기는 것은 유람의 성패를 규정짓는 잣대가 된다.

그렇기에 여성에게 술은 때로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술 마시고 노래함은 대장부애 할일이라 가소롭다 치마형제 무엇으로 노

18) 서지영,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 유럽 '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5, 2003, 285면

19) 서지영, 위의 논문, 286면

리불고 봉우상봉 조흔 날애 화초가을 지여보세(<화조가>)"나 "식물공사(食物工事) 야단(惹端)일세 술을 하자 하니 인생(人生)에 광약주(狂藥酒)라 여자(女子)에 부당(不當)하고"(<춘흥화전가>)의 작품에서 그러한 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의식은 여성들을 권계하는 교훈의 내용을 읊은 계녀가 계열로 이어진다. 계녀가 계열 작품들에서 '접빈객'의 덕목으로 '머리 팔아 술 사기'가 부녀자의 아름다운 행실로 권장사항이 되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의 놀이공간에서 여성들은 경치를 완상하며, 술을 향유한다. 화전놀이 역시 주변의 승지로 나가서 노는 놀이인 만큼, 승지완상과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선인의 풍류와 동일시하면서 술을 마시고 승지를 완상하곤 한다.

이러한 여성의 경치 완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남성들의 작품들이 있다.

春風秋月 好時節과 佳麗江山 좋은 景은/ 遊治郎의 風情이오\_詩酒客의 興味로다/ 登山臨水 하는 일이 女子行實 아니로되 <반화전가>

시절이 말세되니 고이흔 일 하고 만타/ 심규의 부녀들은 완경홀 줄 어이 아라/ 슈동서 스오가의 단찰이 오락가락/ - - 분벽사창은 부녀의 덕힐배오 강산완경은 남즈일노 드럿더니/ 오늘일 보와하니 넷말이 각이하다 /규동부녀는 산수간의 완경호고 풍뉴남즈는 독좌공당 혀여세라 /슈빈의 상하흔들 도흔경을 어이알니/ 연녹 방초안의 단청구경 하시는가 <도화전가>

비판의 요점은 강산완경 즉 밖에서의 경치완상은 심규에 묻혀 지내야 할 부녀자가 할일이 아니라는 점(등산임수 하는 일이 여자행실 아니로다 · 분벽사창은 부녀의 덕힐 배오 강산 완경은 남즈일노 드럿더니)과 경치를 완상할 심미안이 없다는 점(슈빈의 상하흔들 도흔 경을 어이 알니 · 연

녹 방초 안의 단청구경 흐시는가)이다.

이러한 여성의 승지완상에 대한 반발은 남성 사대부의 문화적 위계의 식에서 나온다. 술 또한 단순히 즐기기 위한 쾌락적 요소가 아니라 사대부의 문화적 교양을 구성하는 기호이며, 이런 점에서 술과 결합한 경치완상은 주류문화의 배타적 영역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도 술과 시 또는 노래 짓기, 경치완상을 결합시킨 풍류를 구가한다.

여자의 약한 마음 육적지심 들테읍서/ 꺾밧트로 드러가서 향기조흔 두견  
 화을 줌줍이 단(?)셔내여/ 청유백분 지저녹코 봄향기 맛을 본이/ 압맛도 좇  
 권이와 마음좇차 상쾌하여/ 한잔 술를 마시고셔 두로 거러 산보한이 /취흥  
이 도도하여 글 한 수 지어보세 /화간접무는 분분설리요 유상앵비는 편편금  
 이라/ 시중천자 이태백은 채석강 명월야에/ 포도주를 취해 먹고 일일수경  
 삼백배 매일 장취 하였건만/ 우리는 여자되어 선인의 지적을 엿지 본밧으리  
 요 <태장봉화전가3>

이는 여자로서 매일 취하는 장취(長醉)를 경계하면서도 소담하고 격식을 갖춘 술을 즐기고 있으며, 취흥이 감정을 고양시켜 시작(詩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티빅이 연엽주와 도연명의 국화주”(〈화전가라〉)에서와 같이, 선인의 풍류 사적과의 동일시하며 음주와 시작(詩作)을 하고 있다.

규중(閩中)에 여자(女子)오나/ 너의 풍정(風情) 생각하니 한심(寒心)하  
 고 가련(可憐)하다/ 행장(行裝)에 포도주(葡萄酒)를 수삼배(數三杯) 마신  
 후에/ 쾌활(快活)한 흥이 나서 돌고지 올라서니/ 화향(花香)이 습의(襲衣)  
 하여 흉금(胸襟)이 상쾌(爽快)하다/ - - - 놀음이 이만하니 음식(飮食)인들

범연(凡然)하리/ 옥병(玉瓶)에 감흥로(甘興露)는 국미춘 향기 나고/ 송강(松江)에 노어회(鱸魚膾)는 은사(銀絲)실을 드리운 듯/ 강남(江南)에 연자병(蓮子瓶)은 수중(水中)에 연화(蓮花)로다/ 쭉 뜯어 애탕(艾蕩)하고 꽃 꺾어 화전(花煎)하니 /요지연(瑤池宴) 잔채라도 이에서 못할가요/ 홍문연(鴻門宴) 모듬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노자작(鷓鴣爵) 앵무배(鸚鵡杯)로 반취(半醉)하게 먹은 후에/ 없는 흥이 절로 나서 산수가(山水歌)로 노래하니 <하회화유가>

<하회화유가>에서는 노자작(鷓鴣爵) 앵무배(鸚鵡杯), 옥병(玉瓶) 등 고아한 소품들이 놓인 격조 있는 풍류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문인 소식(蘇軾)의 적벽부 놀이에 비견함으로써 선인의 풍류와 동일시하는 의식을 갖는다.<sup>20)</sup> 또한 <하회화유가>에서는 경치를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해 한심하다<sup>21)</sup>고 하는 전언이 나온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치 완상의 대목은 남성의 풍정에 대응하여 고도한 풍류의 경치를 보여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화전놀이에서 선인의 풍류와 동일시하며 경치와 술을 향유하는 태도에는 남성들의 특권화 된 체험의 영역이 여성들에 전유되는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치에 반발하는 즐거움<sup>22)</sup>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치의 심미적 완상과 술의 향유를 통해 문화적 교양을 대등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20)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나 소연(少焉)에 월출(月出)이라/ 청풍(淸風)은 서래(徐來)하고 수파(水波)는 불흥(不興)이라/ 칠월기망(七月既望) 놀음인가 적벽강(赤壁江)이 완연(宛然)하다”

21) “우습다 남정들이 남자(男子)로 생겨나서/ 인기(人氣)가 장쇠(將衰)한들 풍정(風情) 조차 그리 없나/ 춘추(春秋) 양절(兩節) 좋은 가절(佳節) 연년(年年)이 놀던 일이/ 너희들에 미쳐서는 아주 영영 끊어지니/ 강산(江山)도 섭섭할 뿐 풍월(風月)도 아깝도다”

22) 백순철, 앞의 논문, 61면

(2) 취흥을 통한 정서적 해방감과 자기표현

이와 같이 여성들은 유희 현장에서 선인의 풍류와 동일시하며 술을 향유한다. 사대부적 풍류라는 문화적 교양을 대등하게 향유한다는 의미에서 술을 향유하는데, 이는 여성 고유의 독자성보다는 모방적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빈번하게 여성의 놀이공간에서 술의 향유는 문화적 교양으로 자리하는 풍류의 경계를 넘어선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술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감성의 촉발과 유로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마찬가지로 노래와 시를 짓는 것과 결부되는데, 이 때 술은 노래하기와 시 짓기를 가능하게 하는 쾌활한 정서를 흥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술은 ‘활발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긴장의 이완을 통해 일상의 규범이 주는 위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서적 해방감이다.

백옥잠 감노주는 이긴 편을 상주하고/ 검은 사발 보리탁주 진 사람들 별주로다 /상주 별주 취한 좌석 노래소리 낭자하다 /꾸은 적이 남아스니 놀이 좌석 울니쇼셔/ 외치는 큰소리에 앓차앗차 이젓도다/ 깃그운 오날 노름 우리 청춘 즐거웁고 /백발창안 노인들이 모이나니 받을세라/ 간초르운 술상우에

술병을 갖초노아 /두견화 안주노코 몸소 가서 올린 후에/ 일연춘식 복중성을 우리도 하여보시 - -남은 술 마져 따라 질주배나 하여보세/ 다정봉우 들어보소 이 술 먹고 늘지 마소 <화전가6>

방초를 자리삼아 둥글 원짜 모 방짜로 이리저리 갈나안즈 /동즈 불너 술부어라 한잔 먹고 놀아보즈/ 일비 일비 부일비로 취토록 마신 후에 /취흥이 도도햐 히춘가 한 곡조를/ 길이 읊어 빅히히니 인간헝낙 만타흔들 /우리 들이 오날 노림 이 우에 더할소나/ 여보소 친구들아 노소를 물논히고 마음

노코 놀아보세 /이날을 허송하고 각각 집에 돌아가면/ 봉접구고 사군주에  
다시 기회 업서진다 / 술 마시고 노리하며 노리하고 술 마시고 흥취 잇게  
놀아보세 <휘춘곡>

상주(賞酒)와 벌주(罰酒)를 돌리는 것은 술자리의 흥취를 돋우며, 모임 속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있다. 취토록 마심으로써 일상의 규범에서 놓여나 정서적 해방감을 구가하며 서로 간 교감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이는 일상공간에서 주어지는 “봉접구고 사군주”의 책무감에서 벗어나 술 기운에 취해 “마음 노코 놀아” 보고 “복중성을 하여 보”는 것이다. 긴장된 일상의 끈을 풀어 놓으며, 마음 놓고 속에 있는 말을 나누는 것은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마음’·‘복중성’(腹中聲)뿐만 아니라 ‘심중소회(心中所懷)’<sup>23)</sup> 등 내면을 지시하는 어휘들이 자주 등장한다. 평소에는 마음 속에 담아둘 뿐 드러낼 수 없었던 감정들이 술 기운을 타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 때 취흥이 도도해지는 감정의 고양을 통해 서로 간 공감대를 넓히면서 가사 한 곡조를 읊는 것은 문화적 행위로서의 의식보다는 보다 원초적인 자기표현의 욕구에 근접해 있다. 문학행위를 한다는, 어떤 의도나 목적을 지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솟구쳐 나오는 욕구에 가깝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펼쳐놓고 싶은 자기표현 욕구의 투영이며, 자기표현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술로 인한 흥취는 심리적 여유로움을 가져와 결핍의식을 웃음으로 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잔뿐 ‘산호 호박’이라는 호화로움이 없는

23) “일년일차 이모임 마음인양 못들소나/ 남여분명 달나셔도 심중소회 일반이라/여보소  
벗넙네야 이벼말삼 들어보소 /적막심규 김혼속에 셔러담은 하소연을/ 노래가사 지엇  
거든 이자리에 하소하세”

결핍이 단숨에 동음이의어의 어희(語戲)를 통하여 웃음으로 전화한다.

한두례씩 먹은 후에 일배주를 부어올 제/ 팔모깨기 유리잔에 가득가득 부  
은 술이/ 일배일배 부일배에 없던 흥이 절로 난다 /유리잔은 있다마는 산호  
호박 어이 없노/ 일위 선여 썩 나셔면 어허 세상 요란하다/ 맏 산자 조을  
훗자 산슈로을 산호 되고/ 조홀 훗자 손칠 박자 우리 노래 호박이라/ 어화  
그 말 석 좋구나 솟홀 한번 차져보자<화전가3>

결핍이 웃음으로 전화하는 심리적 여유 속에서 현실에 맞서는 삶의 생  
기가 살아 있다. 놀이가 주는 창조성은 “탄식가류에서 만났던 눈물범벅의  
수동적 여성들이 능동적”<sup>24)</sup>으로 변화하게 하는 무엇이다.

#### 4. 놀이, ‘규범과의 어긋나기’와 자족적 즐거움

화전놀이는 일년에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여성들의 드문 외출이다. 이  
들의 놀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사회가 권장하는 부덕에 은근히 엇박자  
를 놓으며 웃음 짓는 표정들을 언뜻언뜻 볼 수 있다.

집 안에서 나들이 준비로서 치장하는 부분에서부터 목적지로 향하는  
노정 중 행렬의 위의를 묘사한 대목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정신적 자유로움의 표현이다. 그것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쾌쾌묵은 연  
지분을 꺼내드느”<sup>25)</sup> 순간이며, “키도 크고 찬란한 중늬은이”<sup>26)</sup>로서 몸단

24) 이동연, 앞의 책, 352면

25) “장롱 속을 뒤져가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쾌쾌묵은 연화분을 아낌없이 발랐으니  
/누구누구 할 것 업시 모두모두 미인이고 한덩어리 꽃송일세” <평암산화전가>

26) “우리 여러 여자행지 지도 또한 어렵도다/ 꽃신 신고 수심 없이 가는 거동” <평암산  
화전가>

장을 하고 뽐내는 순간이다. 이러한 모습은 어른으로서의 점잖음이나 겸소함이라는 미덕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sup>27)</sup>을 알면서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의연함이 실려 있다.

화전 일즈 바든 일을 당하시와 안노인코 거동보소/ 백발머리 다시째서 口  
박머리 지버이고 /옥색치마 털쳐입고 화죽설디 눈적들고 /시곶쪽 시러든지  
고 석 느셔면 흐는 말삼/ 동셔니야 며날들라 어셔 밥비가즈 /출일이 기다히  
도 노림느리 슈이 간다 <화전가라>

안노인도 백발머리를 다시 빗고 옥색치마를 털쳐입는 “거동”에는 웃음이 묻어난다. 일상에서는 겸소하고 정결하게, 때에 맞추어 차려 입는 것이 관심 두어야 할 사항이었다면, 지금은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충실하여 한껏 화려하게 멋을 내는 것,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이 중요하다. 정형화된 규범적 행위에서 비껴나는 대신 자기표현을 통한 자족감이 깔려 있다.

목적지를 향하는 노정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자스라 가자스라 청춘작반 가자스라/ 심심규중 자라나서 오리횡보 안  
하다가/ 시속히 올라가니 노독인들 아니날가/ 보선 벗어 옆에 끼고 꽃을 꺾  
어 머리 꽂고/ 허닐허닐 올라갈제 무엇을 못할손가/ 양유산의 피꼬리를 이  
리저리 날리면서/ 벽계수 맑은 물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저렇 두루  
거쳐 왕이산을 당도하니 <화전가2>

“시속히 올라가는 것”에는 “오리 횡보(橫步)”라는 양반사대부의 점잔

27) <도화전가>에서는 “삼연목은 남져구리 다시내야 떨쳐넙고/ 허튼머리 다흔 것히 양 각혹각 무스일고/ 아히단장 그만호소”라고 조롱한다.

빼는 걸음걸이와 마찰하는 데에서 오는 쾌감이 엿보인다. 이어 아예 “보 선 벗어 옆에 끼고 허닐허닐 올라가며 발도 씻어보는” 모습에는 더욱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분방함을 표현한다. 이는 “무엇을 못할손가”라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발성으로 이어진다.

앞서 살펴본 ‘음식 만들기’도 마찬가지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는 자탄가 계열 작품들에는 음식하기의 어려움이 토로된다. 일상공간에서 음식 만들기는 함담을 맞추어야 하고 적절한 양을 조절해야 하는 등 고달픈 노동으로 인식된다.<sup>28)</sup> 반면 놀이공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자유롭다. 일상 속에서는 절도 있는 음식 만들기에 얽매어 있다면, 놀이 속에서는 오히려 음식지절과의 어긋남에서 오는 웃음을 즐긴다. 자신들을 위한 음식 만들기로서, 이때야말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를 온전히 향유한다.

또한 놀이공간에서는 ‘만들기’의 기쁨 못지않게 ‘먹기’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배불리 먹는 포식의 즐거움이 표현된다. 음식이 일상의 실천적 행위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포식이 주는 포만감의 표현은 교훈적 내용의 건너가류에서 강조하는 절용의 이념으로부터 비껴나 있다.

그 결과 여성의 놀이공간 속에서 비로소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체현하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문학적 표현을 획득한다. 미각과 촉각, 후각의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통해서 향취와 풍미가 살아있는 일용하는 양식으로서, 일상 속에서 몸에 새겨진 음식의 의미를 문학화하고 있다.

술 또한 일상공간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음식에 속하는 것으로, 손님에게 접대해야 할 음식, 잘 빚어야 할 음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놀이공간

28) “용정혀여 물여드가 경구지임 귀촌터라/ 밥 잘 짓고 술 잘 비져 쥬스시에 어렵드라/ 함담을 맞기혀 반감분기 어렵드라” <여자탄식가>, “슬프다 우리 어찌 산간벽지 생 존하야/ 산정지뜰 부엌에서 방아짓고 물여다가 음식공지 직분이요/ 엄동설한 찬바람에 빨래하기 고생이요/ 장장한일 더운날에 농사바라지 원수로다” <화전가5>

에서는 여성들 자신이 향유하는 대상으로 전화한다. 전통적으로 술은 사대부의 문화적 교양인 풍류의 한 요소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술의 향유는 남성 문화의 특권적 체험을 전화시켜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놀이공간에서 술이 갖는 고유한 성격은 일상의 규범에서 오는 긴장을 이완시켜 정서적 해방감을 고조시키는 흥취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분방한 정서의 유로를 통해서 정서적 해방감을 만끽하며, 이 감정을 노래와 시로 표현해 내고자 한다. 이 때의 노래 부르기와 시 짓기에는 문화적 교양의 의미보다는 보다 원초적인 자기표현의 욕구가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표현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성 간 유대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화전가 작품에서는 여자로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직설적인 신세한탄, 부녀자의 직분과 덕목에 충실하지는 다독임, 권위적인 남성에게 대한 비판들이 뒤섞여 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현존을 돌아보며 무질서하게 터져 나오는 감정들을 토로한다. 따라서 자기표현이라는 욕망의 발산으로 인한 감정의 산란성을, 정연한 의도된 문학이라는 틀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성의식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놀이 속에서의 재미는 여성 간 친화적 연대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만족적인 즐거움에서 온다. 자신들을 위해 음식과 술을 온전히 향유하며, 정서적 해방감을 통해 즐거움을 누린다. 거기에 깔려 있는 규범과의 은근한 어긋남에서 오는 자족적 웃음이 화전놀이를 그토록 열망했던 이유였으리라 생각된다.

## 5. 맺음말

이상에서는 여성들의 전통적 놀이인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화전가를 중심으로, 여성의식과 관련하여 놀이공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때 중심 기호는 음식과 술로 보였다. 놀이공간에서는 일상의 규범에서 벗어나 정서적 해방감을 구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음식'(술 포함)은 만들기로부터 비롯되는 재미, 배불리 먹기에서 오는 포만감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규범과 어긋나는 즐거움을 준다.

특히 음식은, 사대부 가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놀이공간 속에서는 유의미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남성 사대부 문학과는 달리, 화전가에서는 음식이 일상적 실천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니면서 몸에 새겨진 미감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획득한다. 또한 술은 사대부의 놀이문화인 풍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여성이 술을 마심으로써 주류문화의 문화적 체험을 전유하는 의미를 지니는 한편, 자신의 현존을 돌아보는 자기표현의 욕구를 투영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삶 속에서 놀이공간과 그 속에서 작동되는 놀이적 성격은 일상적 규범에 대한 어긋남에서 오는 재미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현존에 대한 투시로 나타난다. 놀이 속에서의 재미는 여성 간 친화적 연대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만족적인 즐거움에서 온다. 자신들을 위해 음식과 술을 온전히 향유하며, 정서적 해방감을 통해 즐거움을 누린다. 거기에는 규범과의 은근한 어긋남에서 오는 자족적 웃음이 깔려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적 삶과 체험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여성의식의 공통적 특질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므로, 화전가 계열 내에서의 변별성과 통시적 흐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대 박사학위 논문, 2000, pp.1-157
-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pp.1-294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대 박사학위 논문, 2000, pp.1-158
- 서영숙, 「여성가사에 투영된 작가와 독자의 관계」,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pp.213-242
- 서지영,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 유럽 ‘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5, 2003, pp.285-315
- 『MBC 민요대전』, 경북-발매는 소리, CD
- 『MBC 민요대전』, 충북-시집살이 노래, CD
- 요한 호이징하, 『호모 루덴스』, 까치, 2008, pp.1-326
- 이동연, 「화전가류」,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pp.345-346
- 이상보,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pp.1-307
- 이형대,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인식」, 고대 박사학위 논문, 1997, pp.1-178
-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집성』, 누리미디어, CD

ABSTRACT

The Female's Playing space and its characteristics in *Whajeonga* :  
Focusing on 'food' and 'drinks'

Yu, Jeong-Sun

This research, which is about *Whajeonga*, intended to examine the meanings of play experience. Through *Whajeonga*, the research investigated female's consciousness of dreaming to escape from daily life, especially focusing on food and drinks they enjoy. In playing space it is essential to have a sense of emotional freedom, out of their daily standards.

It is making and feasting on their food that gives the enjoyment of running contrary to the social standards. Food do not hold a practical meaning in *Sadaeboo Gasa*, in contrast to female playing space. Also alcoholic drinks in female playing space allows females to experience drinking culture in other ways, further allowing them to look back at themselves.

Thus, enjoyment through playing comes from pleasure of self-sufficiency, which is formed in friendly bonds between them.

**Key Words** Whajeonga, Playing space, Playing characteristics, food, drinks, pleasure of self-sufficiency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